

**<간호학과 4학년 동안 학점 4점 중반대 유지하고 BIG5병원 합격하는 법>**

저는 간호학과 4학년을 다니며, 학업에 열중하여 높은 학점을 유지하였고,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여 토익 ,HSK5급을 받았으며, 여러 스펙 등을 쌓아서 이번 2021 신규 간호사 BIG5병원에 합격하였습니다. 저의 학습 노하우 및 팁이 후배들의 학과 공부와 취업에 도움이 되고 싶어 공모전에 참가하였습니다. 저의 주제는 과목별 공부법과 BIG5 병원에 합격하기 위해 어떤 스펙을 쌓았고, 취업 준비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1. 과목별 공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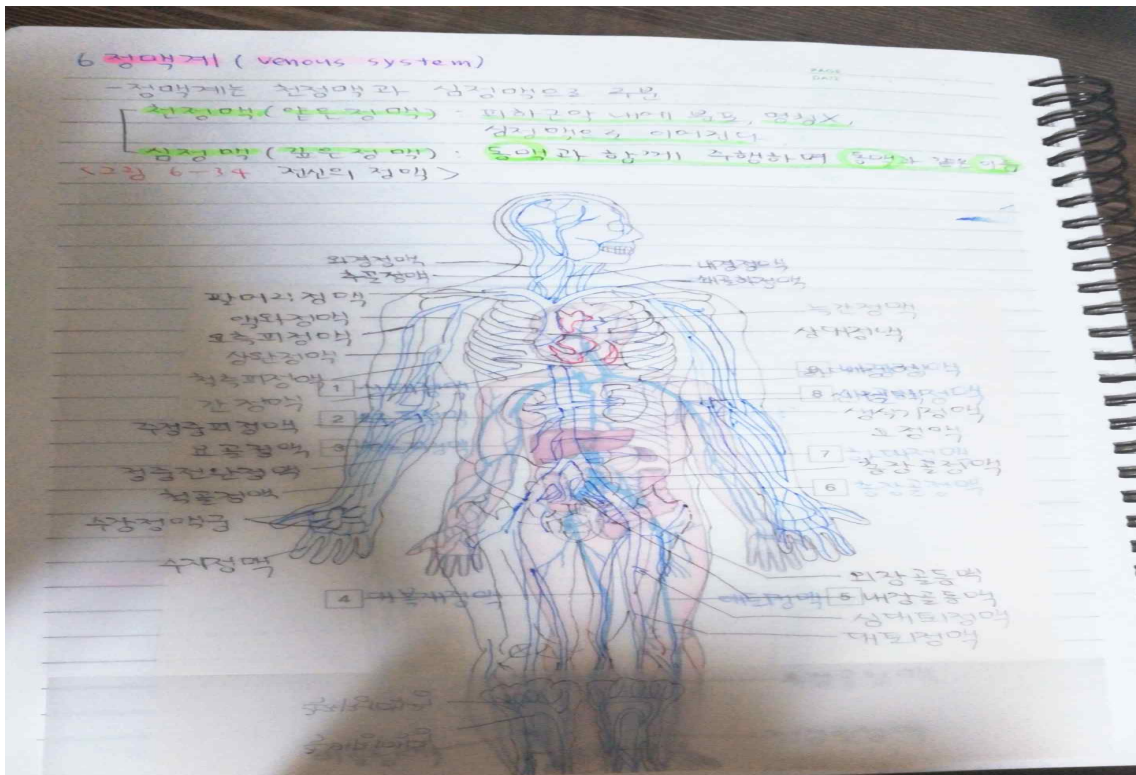
먼저 학기 별 가장 중요한 과목의 공부법 및 저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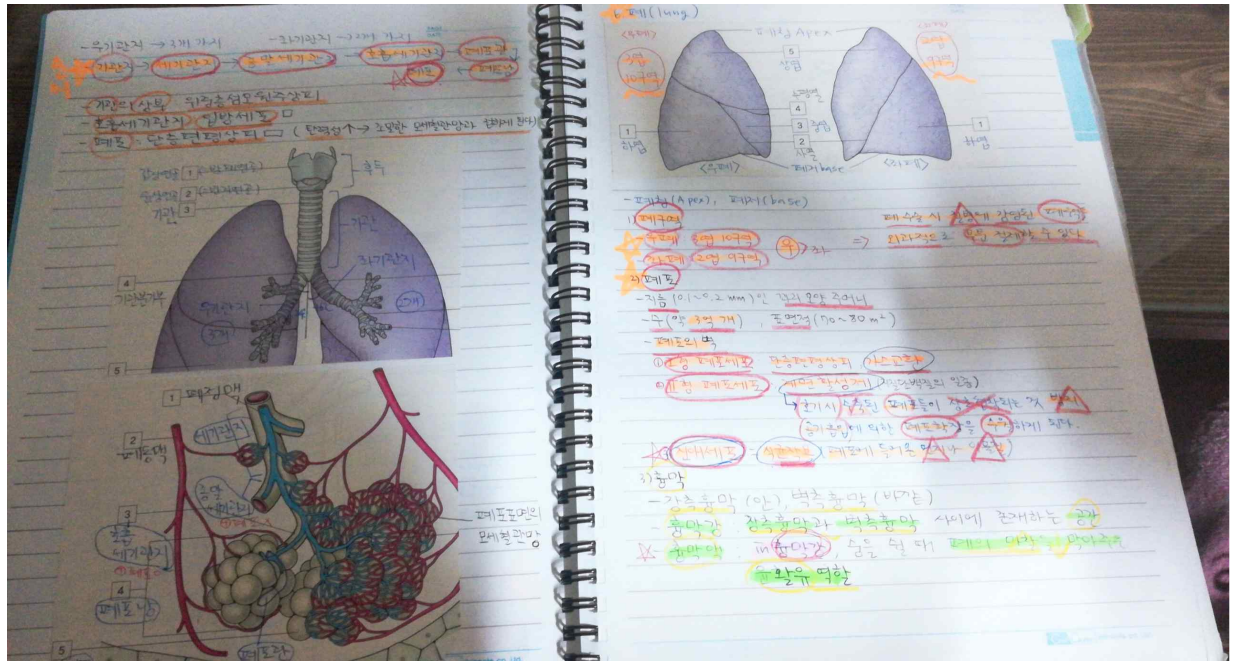
1)1학년 1학기

## (1)인체구조와 기능

해부학 과목은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중요한 과목입니다. 전공과목의 모든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1학년이라면, 해부학만이라도 완벽하게 학습한다면, 간호학과 4학년 나머지 학업에 큰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수업 내용도 꼼꼼히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록하려고 노력했으며, 해부학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해부학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 기록하고, 실제 그림도 제가 직접 그리거나, 해부학 컬러링 책을 사서, 색칠을 하며 위치를 암기하고 노트에 부착하는 식으로 암기하며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그리면서 정리하는 것의 장점은 정말 까먹지 않고, 시험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상세히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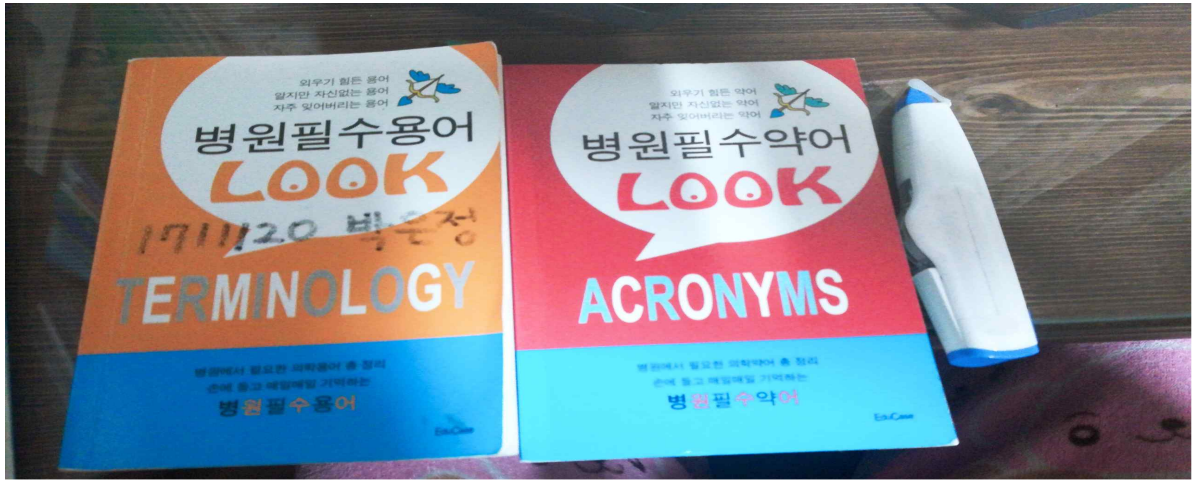
1학년 여러분들도 꼭 해부학 노트는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 (2)의학용어

의학 용어 또한 정말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1학년 때는 아직 간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의학용어를 암기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도 하루 100개씩 의학 용어를 암기하는 것이 매우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암기과목은 의학용어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스터디 원들 끼리 모여서 일주일 동안 공부할 의학용어 범위를 정하고, 매주 금요일 마다 의학용어 시험을 쳤고, 시험에서 과락을 한 경우 벌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스터디 원들끼리 열심히 했고, 모두 의학용어 과목에서 A+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락 해서 모인 벌금으로는 시험이 끝나고 맛있는 음식을 사먹으면서 친구들과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학생들께 꼭! 의학용어 스터디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보길 추천합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특히 의학용어 같은 단순암기 과목은 항상 손에 들고다니며 자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통학버스를 타며 학교를 다녔던 저는 항상 작은 미니 의학용어 책을 들고다니며, 버스에서 틈틈이 보며 의학용어를 암기했습니다. 이 노력의 효과는 바로 실습 때 나타납니다. 병원에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의학용어 중 한글이 아닌 영어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계 시간에 간호학생으로서 인계 내용을 듣고 이해하려면 꼭!!의학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현재 환자의 진단명, 검사 등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 (3)감염미생물과 간호

#### 2)1학년 2학기

##### (1)기본간호학

기본간호학 가장 기초가 되는 간호 과목입니다. 기본간호학 같은 경우는 간호사로서 제공하는 간호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간호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특히 기본 간호학은 수치가 중요합니다!! 각 검사 수치의 정상 범위나 여러 가지 카테터 크기의 Fr, 온도, 단위, 바늘 gage 등 수치들을 꼭! 시험 전날에 한 번 정리할길 추천 드립니다. 저도 기본간호학 시험 전에는 항상 수치만 모아서 따로 포스트잇에 정리를 해서 수치를 헛갈리지 않도록 공부했더니, 교수님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학점도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 습니다.

##### (2)병태생리학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교수님이 따로 파일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과목은 정말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험도 어렵 습니다. 저는 이 과목 시간에는 정말 초집중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교수님께 바로 가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병태생리학은 저희가 한번 듣고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재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에서 병태생리학 과목 도서를 3권정도 빌려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한 교재에서 조금 부족한 설명을 다른 교재에서 상세하게 다뤄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재의 내용도 같이 공부했더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잘 이해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파일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쉽게 한쪽 면은 수업 내용과, 한쪽 면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을 잘 활용하여, 수업 내용을 요약 정리하거나 추가 설명을 적어서 빈 공간에 정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험기간에는 제가 정리한 부분만 열심히 보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않아서 이 과목이 왜 중요한지 모르지만, 실습을 나가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케이스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케이스를 작성하려면 최소 한 환자당 간호과정이 4개는 짜야합니다. 그러려면 간호사정, 간호진단 4개, 간호계획 16개, 수행 16개, 간호평가8개 정도는 짜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습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 과목에 대한 깊은 학습과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추가로 특히 서울아산병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과목을 더욱더 @@!!!공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차 면접에서 환자 CASE를 주고 이 환자에게 제시할 간호진단, 간호계획을 면접 때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학습할 때 뿐만 아니라 실습 시 자신이 정한 환자의 케이스에 대해 진단을 내려보고, 간호과정을 세워보는 것이 면접 준비와 같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 4)2학년 2학기

##### (1)성인간호학

4년 동안 배우는 간호학 과목 중 가장 양이 많고, 학점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취업 시 성인간호학 성적을 기재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필히 A+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성인간호학 과목은 다양한 교수님들이 챕터를 나눠서 수업하기 때문에, 각 챕터를 공부할 때 교수님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교재를 주로 이용하시는 교수님 분들이 수업하실 때는 교재 내용을 정말 꼼꼼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린터 물을 추가로 제공해서 수업하시는 교수님들은 교재 내용뿐만 아니라 프린터물 내용도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프린터물의 내용을 교재에 포스트잇으로 짧게 정리하여 시험기간에는 교재만 들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입니다.

국시 과목에서도 가장 많은 문항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시험기간에는 꼭!! 국시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대간협 같은 경우는 문제와 해설 밖에 없어서, 문제집 구성이 지루할 수 있지만, 퍼시픽이나, 필통 같은 문제집은 문제와 해설뿐만 아니라 요약정리도 있어서 각 챕터당 문제를 풀고 요약정리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주로 퍼시픽을 이용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문제집 대출이 가능하므로 도서관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2)아동간호학

전공과목으로 아동간호학은 성인간호학과 비슷하지만 그 대상이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질환별 아동과 성인의 차이점에 대해 잘 구분하시고, 아동은 작은 수치에도 민감하므로, 수치 등을 잘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간호학 교수님들은 대부분 프린터 물로 수업하기 때문에 교재는 보지 않았고, 프린터물만 잘 숙지하자는 생각으로 시험기간에 공부했습니다.

##### (3)지역사회간호학

정말 정말 양이 많은 과목입니다. 매 수업시간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읽고 지나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놓치지 않고 교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예습이 정말 필수인 과목입니다. 저는 대부분 과목을 수업 시작 전에 어느 정도 분량을 예측해서 예습을 했지만, 정 시간이 없으면 꼭!!! 지역사회간호학은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들어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과목은 정말 꼭 예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간호학은 주로 이론과 내용 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에 국시 준비를 위해서는 문제집을 꼭꼭 풀어야 합니다! 교재에서 배운 내용을 문제집에서 적용하여 문제를 푸는 스킬을 배워야 합니다.

#### (4)약물 요법 간호

약물은 정말 어렵지만 중요한 과목입니다. 어려운 약물 이름들은 계통별로 약명, 상품명 둘 다 암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당일 복습과 당일 암기가 필요합니다. 항상 외워도 까먹은 약물 이름이기 때문에 약물은 정말 의학용어 암기처럼 암기 과목이다 생각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약물 같은 경우도 실습 시 환자 케이스를 파악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실습 시 케이스 이해력을 위해서라도 약물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이때 감지 암기법으로 약물을 적어가면서 암기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렵고 외워지지 않는게 약물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드러그 인포'라는 약물 사이트를 이용하여 약물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 5)3학년 1학기

#### (1)모성간호학

모성간호학은 여성의 질환을 주로 다루는 과목으로, 저는 이 과목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여성인 저의 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여성 질환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더욱 흥미를 가지고 공부했던 과목입니다. 좋은 교수님의 수업 방식으로 수업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면 학점도 잘 나왔던 과목입니다. 교재 위주로 중요한 부분을 중점으로 암기하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정신건강간호학

정신간호학 과목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배웠던 과목입니다. 각 정신질환을 사례별로 공부해보면서 여러 가지 증상과 진단명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간호중재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각 진단명 별로 특별한 증상을 파악하고, 분류하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6)3학년 2학기

#### (1)성인간호학실습

실습을 하면서 진정한 간호학도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교대근무로 데이, 이브근무 시간대에 똑같이 출근하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는 업무를 관찰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 실습 메이트가 누구냐가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실습을

대부분 번호 순으로 부서가 배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번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1,2학년 때 자신의 번호 주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실습에 나가서는 나의 친구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내가 친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도와주면서 전우애가 생깁니다.

실습 시 가장 중요한 것을 자세인거 같습니다!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간호학생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습을 할 때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업무를 잘 관찰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해두었다가 바쁘지 않을 때 질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생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간호사 선생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마다 바뀌는 실습지에서 가장 첫날 해야 하는 것은 물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V/S, BST기계의 위치뿐만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물품 위치를 파악하고, 물품이 떨어졌을 때는 선입선출로 물품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리정돈!! 첫 사회생활에서 정리정돈만 잘해도 이쁨받는다. 라고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실습했습니다. 물건의 위치를 사용한 후 바로 제자리에 두고, 어지러진 자리를 바로바로 정리하고, 소독했습니다. 간호사로서 청결, 위생, 소독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간호 학생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실습에 가서, 물건위치를 잘 파악하고, 사용 후 제자리에 두고, 부족하면 바로바로 채워놓는것만 잘해도!! 간호학생으로서 역할을 8할 이상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BIG5병원 취업 스펙 쌓기

저의 스펙은 학점 4.3점, 토익 850점, HSK5급, 컴활2급, 워드2급, ITQ 파워포인트, 한글, 중국어 어학연수, 봉사활동 150시간, 필리핀 선교봉사, 루게릭 환우를 위한 제주도 자전거 종주 기부 캠페인, 마라톤 입니다. 스펙이 그렇게 필수는 아니지만, 저는 자소서, 면접에서 에피소드를 말할 때 풍부한 경험을 말하고 싶어 대학교 생활과 방학 때 여러 가지 스펙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스펙 쌓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젊을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게 나중에 간호사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듭니다. 면접 때에도 다양한 경험을 해본 것에 대해 면접관님들이 궁금해 하셨고, 그런 것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이한 경험 자신만의 색다른 경험이 있을수록 자소서든 면접에서든 평가자의 관심을 받기 쉽습니다. 간호사로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스펙이나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도전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간호사는 고된 업무 강도로 높은 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꾸준한 체력관리를 할 수 있는 활동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BIG5병원에 지원 자체에 토익 점수 상한선 기준을 정했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은 750점, 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은 700점입니다. 지원자들 대부분이 800점은 기본으로 넘습니다. 900점대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토익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 3. 취업 준비 기간별

### 1)3학년 겨울방학~3월



저는 이때부터 자소서를 준비했습니다. 자소서 정말 어렵고, 쓰기 어렵습니다. 일단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자소서를 쓰기 전 먼저 자신의 스펙과 경험을 다 미리 적어놓고, 정리를 합니다. 포스트잇에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경험이나 자격증을 적어두고, 자신의 원픽 병원 자소서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때 저는 주로 '오직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사 자소서'라는 홍지문 책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병원별로 병원 홈페이지와 간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션, 비전, 핵심가치, 인재상, 주요 사업,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등 상세히 파악하여 한글 파일에 정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마다 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병원의 목표와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별로 자소서 내용을 약간씩 다르게 써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자소서를 쓸 때는 홈페이지 내용과 홍지문 자소서 책을 번갈아가며 보며 정리하여 적었습니다. 책에 내용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어떻게 적어야 하는 지 파악하고, 대략 구도를 짜보고, 항목별로 저의 스펙을 연결하였습니다. 대략적인 글자 수를 맞춰 적어 본 이후, 각 병원별 오픈 카카오톡 방에 참여하여 지원자들과 함께 합격 자소서, 면접 자료, 면접 후기 자료들을 공동구매 하였습니다. 한 병원 당 1000~2000원 정도를 내면 5년 기출 면접 문제나 합격 자소서 등을 공동구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병원이 추구하는 역량 등을 잘 파악하고, 깔끔하게 써진 합격 자소서의 문구, 어구 등을 이용하여 자소서를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따로 인터넷으로 첨삭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첨삭은 사실 돈이 여유가 있으면 첨삭 받기를 추천합니다. 돈 주고 첨삭한 자소서를 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대학생 수준보다 훨씬 퀄리티 높게 수정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들께 자소서 첨삭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약간씩 수정을 해주시면 학생들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을 짚어주시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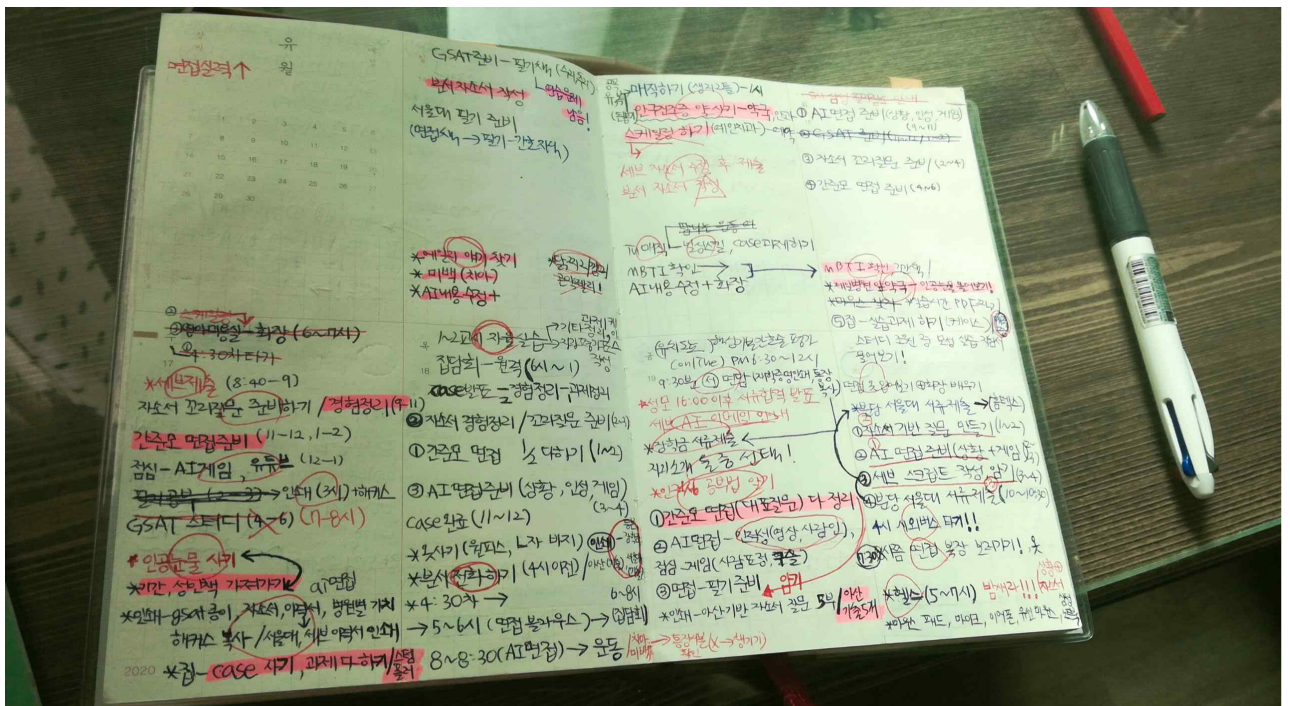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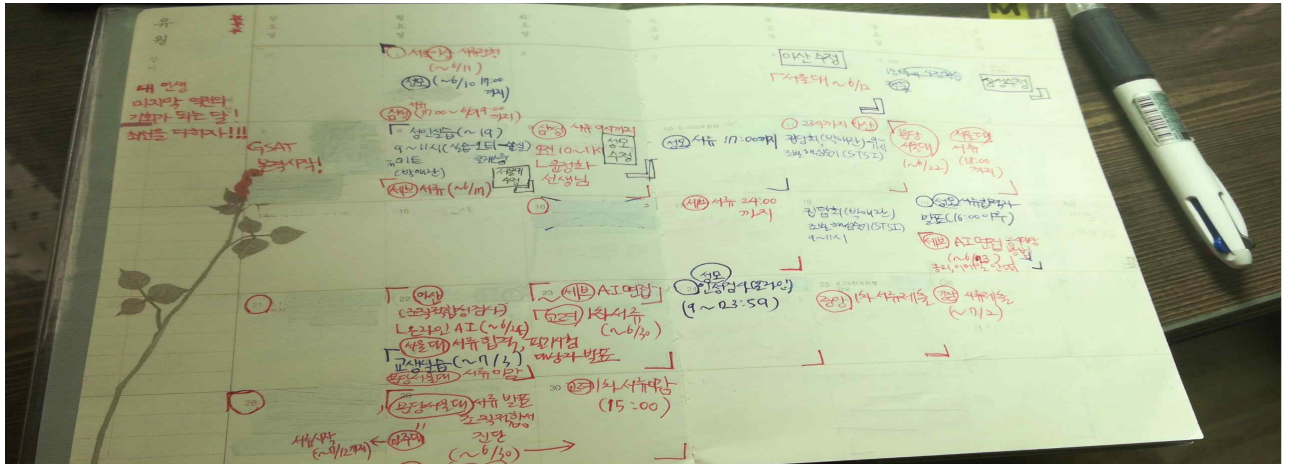
## 2)BIG 서류전형 접수 시작~1차 면접 전

가장 먼저 간호사 채용 공고가 BIG5병원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원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필요 서류들을 USB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재학증명서, 성적표, 자격증, 상장, 이수증, 사회봉사활동내역서 등 여러 자료들을 지원서에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스캔을 해서 USB에 보관하면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꼭!! 지원서 작성할 때는 숫자 하나, 글자 하나라도 신중하게 적어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이걸 적는 게 맞나? 의문이 들면 각 병원별 오픈카카오톡방에 질문하거나, 인사부에 직접 전화해서 여쭙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지원자들 모두 처음 지원하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인사부에 전화하는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1차 면접... 사실 2차 면접보다 1차 면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생활 4년 중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하는 기간입니다. 각 병원별 1차 면접을 보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직무 면접, 인성면접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직무 면접을 1차 면접으로 보기 때문에 둘 중에 선택한다면 직무면접 먼저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홍지문 '현직 간호사가 알려주는 간호사 면접' 책을 보고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각 병원 별 기출 문제를 공구하여 기출문제에 저만의 답변을 다는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 기출문제에 답변을 달고 이 답변을 꼭 암기해야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자소서와 면접 준비를 하면서 다이어리에 제 스케줄을 작성했던 사진입니다. 저는 항상 매일매일 최선을 다



하기 위해 다이어리에 오늘 할 일을 상세히 적고, 제출날짜와 마감기간을 꼭! 숙지하기 위해 다이어리에 항상 표시해두었습니다. 치열하게 열심히 했던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정말 후회하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 3) 1차 면접~2차 면접

마지막 면접 준비입니다. 이때는 주로 인성 면접 위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을 사례별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때 유튜브 면접 관련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성 면접 시 답변 달기가 어려울 때 유튜브 영상을 찾아가면서 보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면접 즉 최종면접을 볼 때는 솔직하기 하되! 각 병원의 인재상과 핵심가치를 마음속에 새겨두고 임하자!였습니다. 나는 이 병원에 꼭 합격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풀 장착하고, 떨릴 때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 진정하였습니다.

#### 4)최종면접~ 최종합격

최종면접 이후 긴 시간이후 합격 결과가 나오면!!! 정말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세요~그리고 며칠 후 신검과 필요 서류들을 여러 가지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류 제출할 때도 오류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필요 서류를 꼭 2매씩 준비하여 제출 시 오류가 난 부분을 확인할 때는 바로 새로운 종이에 재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화이트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간호학과 4학년 생활과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 경험들과 팁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후배들에게 저의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